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2월 19일(주일) 제1136호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진 세상”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재건한 네팔 고레다라 마을 전경.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네팔 고레다라 마을 조기복구사업 완료 가옥 69채(81가구), 학교, 교회, 마을 내부도로, 상수도 건립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해 4월부터 실시한 ‘네팔 고레다라 마을 조기복구사업’을 끝마쳤다. 지난 12월 이를 기념하는 ‘고레다라은혜교회 건축 및 조기복구사업 완료 감사예배’를 드렸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김창욱 사무총장, 박일구 선교사, 정영열 장로, 박현규 형제, 의료사역팀, 고레다라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한

네팔 고레다라 마을 조기복구사업의 열매는 풍성했다. 예배참석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는 말씀이 떠올랐다고 전언했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은 2015년 4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해발 1,30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고레다라 마을은 오지 중의 오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의 손

길조차 닿지 못하고 있었다. 고립된 고레다라 마을을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재건했다. 그동안 교회, 가옥 69채(81가구), 학교, 마을 내부도로, 상수도를 건립했다.

정거바하들 목사(고레다라은혜교회)는 “지진 이후 날마다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웃고 있다”면서 “고통의 눈물을 닦아 준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예배를 드린 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역을, 마을 리더십들에게는 CHE(Community Health Education & Environment)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사역은 고레다라 보건소에서 이를 동안 실시했다. 치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내과 등의 진료를 했고, 총 306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13일에는 마을 리더십 7명을 대상으로 CHE교육을 실시했다. CHE는 자립, 자영, 자치 원칙에 따라 현지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개발전략을 말한다. 박대호 장로가 전인적 건강, 지역사회 주인의식, 더멋진마을 위한 필요와 자원, 화장실

과 위생, 마을비전 수립 위한 세계관을 주제로 강의했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는 홍콩에서도 이어졌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과 CGNTV가 연합한 ‘CGNWorld’가 홍콩의 독거노인 150여 명을 초청해 위로잔치를 열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확대당회

일시: 2월 25일 토요일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제직회

일시: 2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대상: 모든 제직

공동의회

일시: 2월 26일 3부 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상반기 공동체 목양대회 개최

3월 4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

상반기 공동체 목양대회가 3월 4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공동체 목양대회는 교역자, 장로, 권사, 총무, 다락방

장, 순장 등 공동체 리더십과 차세대 코치(총무), 대학청년부 MC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다. 신임 순장 및 다락

방장, 차세대 코치, 대학청년부 신임 MC 등 신임 리더십들에게는 임명장이 수여된다. 공동체 목양대회에 올 때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것이 좋다. 행사 당일 교회 인근 도로 및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촌역에서 교회로 오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공동체별 카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02-3215-3239

/ 정현주 기자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암 투병 중인 딸과 간호하는 어머니

돌이키고 살아난 사람들을 부단히 찾고 있는 본지에 병원사역을 섬기고 있는 김정숙 목사가 글을 보내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고 살아난 것만큼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이 또 있냐는 내용이었다. 날마다 돌이키고 살아나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느낀 감동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다고 했다. 김정숙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자.

/ 편집자주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인간은 이 세 가지를 언젠가 모두 잃어야 한다. 모두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잃은 사람이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다. 돈, 명예, 건강이 부질없어지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고 살아나고 있다. 병원에서 주님을 만나 돌이킨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병원에서 만난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킬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지면을 빌려 돌이키고 살아난 한 모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순천 한국병원 원목 정맹님 전도사님께서 나를 만날 때마다 한 모녀의 전도를 부탁했다.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사돈인데 꼭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셨다. 지난해 어느 날 두 모녀를 만나러 병실에 찾아갔다. 딸 오유경 자매는 암 투병 과정에서 심장이 심하게 나빠져 있었다. 몸의 움직임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심장이 약해지면 코를 고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오유경 자매도 그랬다.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코고는 소리 때문에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간호사 데스크 옆에 있는 치료실에 격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곳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녀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 주고 돌아오곤 했다. 몇 번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일반병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한삼순 씨가 반가운 얼굴로 내게 인사했다.

“우리 딸이 코를 안 골아서 일반병실로 왔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준 이후로 코를 골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과 목사님께 매일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일반병실로 온 자매는 혼자 걸을 수는 없었지만 인지가 돌아왔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호전되었다. 또 하나 다행인 것은 그 자매의 옆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가 오룡교회 집사님이셨다. 그 집사님이 끊임없이 모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고 있었다.

어느 날 병상을 찾은 나에게 그 자매가 “목사님 엄마 전도를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목에 걸려 있는 불교(卍) 모양 목걸이 좀 빼

버리게 도와주세요. 저것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끌어당겨 목걸이를 빼서 지갑에 넣어 드리고 줄만 다시 걸어 드렸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안 시큰둥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다.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두 주 정도 지났을 무렵 출근하는 나에게 그 자매의 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자신의 목에 걸린 십자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제가 금은방에 가서 불교(卍) 목걸이를 두들겨서 십자가로 바꿨어요.”

그 일이 아직도 나의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다. 그날 이후 그 자매 어머니의 신앙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모녀가 함께 세례를 받고 싶다는 소망은 지난해 부활절 주일에배에서 이뤄졌다.

세례를 받은 이후 모녀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았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그 자매의 어머니가 급하게 나를 찾아왔다. 추석에 차례상 차리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화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 뜻밖의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드릴 테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돌려앉아 이 기도문을 읽으세요.”

그렇게 그 자매의 가족들이 추석에 돌려앉아 기도문을 읽었다.

한 사람의 돌이킴이 전통 제사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역사를 만들었다.

딸아 소중한 내 딸아 힘을 내렴...

오유경 자매에게는 심장이식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4년여 동안 투병을 하면서 생긴 합병증으로 심장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 손상된 심장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큰 지장이 있었다. 나는 봉사자들과 함께 매일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오고 있었다. 심장이식 제 공자는 있는데 이식을 받아야 할 자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자매 어머니의 기도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 자매의 몸 상태가 좋아졌고 정말로 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을 앞둔 자매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수술 시간이 다가와 중환자실에서 그 자매의 남편과 어머니와 예배를 드렸다. 기쁨과 두려움에 휩싸인 자매가 입술을 떼며 “여보 안아 줘”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목사님 안



지난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두 모녀

아 주세요”, “어머니 안아 주세요”라며 차례로 사랑하는 사람들 품에 안겼다.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달은 나의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다. 수술실에 들어간 자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 수술실 앞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기분이었다.

그 자매는 지금도 힘들게 숨을 붙잡고 있다. 이식된 심장기능이 저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는 자매를 보면서 모두가 울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모녀가 무엇을 기대 할 수 있을까. 내려놓음 속에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딸의 귀에 대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옆에서 딸도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온몸에 주사 바늘을 꽂고 심장박동기를 부착하고 있지만 모녀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 현대의술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 내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모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재창조 해주실 것을 믿는다. 쉽지 않은 회복의 시간에도 오직 기도가 모녀를 살게 할 것이다.

어머니의 눈물을 헤아려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어머니는 이번 설에 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생각해보니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읽을 기도문이 필요하셨던 것이다. 이번에는 기도문이 아니라 정식예배를 드릴 수 있게 순서지를 만들어 드렸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 설교, 찬양 모두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순서지를 소중하게 안고 고향으로 떠났다. 집에 다녀와서는 “예배드리는 중간에 남편이 밖으로 나가 버려서 혼자 울면서 찬송하고 설교하고 했는데 영감이 그대로 반대하지 않은 것이 고맙다”고 하셨다.

최근 중환자실 면회시간에 허리 굽어 늙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목사님,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왜 유경이가 안아 달라고 했을까요. 그 때 더 꼭 안아 줄 걸 그랬어요.”

어머니의 가슴에는 모든 것이 후회고,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다. 어머니가 이런 고민과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봉사자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고 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하다.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모른다.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성경 일독을 마치고 있다. 언제 저렇게 변화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믿을 생활이 체질인 것 같다. 그녀가 돌이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라는 말처럼 모녀가 진정 살아났다. 육체는 언젠가 사라진다 해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섰으니 복 받은 모녀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오유경 자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그녀가 다시 병동으로, 집으로, 사회와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김정숙 목사
(삼성병원 선교,
온누리 호스피스 담당)

제10기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일시: 3월8부터 5월17일까지
문의: 장은숙 팀장 010-3715-1652
강경옥 총무 010-3412-7966

삼성서울병원선교
문의: 황인경 팀장 010-8367-8835
이영미 총무 010-8944-0634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Good to great〉라는 책은 오랫동안 기업과 리더십분야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수가 쓴 책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책의 제목을 바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Good to great’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라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Great to good’으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위대함을 넘어서 선함으로 나가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위대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위대한 목자’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간청, 하나님의 거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이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인생에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함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선한 지도자로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경험하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전을 다음사람들에게 계승해주고 아름답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함을 넘어서 선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지막 단계는 성공이 아니라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도록 계승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만약 다음 세대가 비전과 일을 이어가는데 일을 실패한다면 선한 지도자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해서 선한 지도자라 부르기 어려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잊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넘어야 할 산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헌신된 사람이라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직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후반부

에 나오는 사건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간청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간청은 자신도 백성처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에게 최소한의 보상으로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 것이 합당한 조치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번이고 진멸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한 덕분에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모세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 첫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수많은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세가 자신을 위한 단 한 가지 간청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야속해 보이고, 냉정해 보일 만큼 그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단 한 번의 간청을 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을까요. 가혹하게 보이고,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볼 때도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 경험, 판단으로 볼 때는 분명 이것이 최선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모세가 미워서 그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는 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간증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두 가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지역을 지날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메말라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대항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물을 주겠다. 그리고 그 물로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어 목마른 백성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내리쳤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족들이 마셨습니다”(민 20:10-11).

첫째, 모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라는 말은 마치 자신이 물을 내어 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을 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바위에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말하라고 했고, 개역개정에서는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바위를 두 번 내리쳤습니다. 문제는 물이 바위를 쳤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물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행동은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을 이해하고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느냐”고 하면서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요, 대리자입니다.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으면 물만 냈으면 되는데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보이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민 20:12).

하나님은 이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랑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왜곡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잊었는지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잊었기 때문에 간청할 수도 있고, 기억했다면 시간이 흘렀으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 가능성을 보고 간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세를 그 세대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둘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네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네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28절).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은 후임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에게 모세의 인기와 위대함이 하나님보다 깊이 각인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가 나옵니다. 당시 세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를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섬길 위험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2면에 계속〉



특집대담 | 점점 미화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애가 우리

죄를 죄라고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 실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해줘야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

차세대까지 위협하고 있다. 동성애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동성애는 일부 극소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자녀, 내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덮어놓고 모른 척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소설, 웹툰, 동성애 성매매 등의 정보홍수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바로 돌이켜 살아야 한다. 교회와 가정에서 동성애 문제를 가만 보고 있으면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낳은 심각한 2차 피해들과 가까워서 대면할 수도 있다. 차세대 본부장 노희태 목사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가정사역공동체)를 만나 '차세대까지 위협하는 동성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김지연 약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Q 동성애가 차세대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김지연 약사(이하 김): “차세대들 사이에서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보고 즐기는 팬픽과 웹툰의 상당수가 동성애 소재물입니다. 팬픽은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팬들이 쓴 소설을 말합니다. 문제는 팬픽의 주요 소재로 동성애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을 동성애자로 설정하여 소설로 쓰고, 그 소설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인터넷 블로그 등에 연재하는 일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레 동성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를 소재로 쓴 소설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세대들에게 동성애를 소재로 한 소설은 이제 더 이상 비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BL(Boys Love) 소설, GL(Girls Love) 소설, 수위 소설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동성애를 소재로 한 소설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웹툰(웹사이트에서 배포하는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친근하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웹툰 하루 이용자가 7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동성애 옹호 웹툰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동성애를 소재로 한 웹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치료비용은 철저히 숨기고, 동성애를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노희태 목사(이하 노): “지난해 서울 삼성병원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37만 명을 대상으로 동성 간의 성 접촉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고생 165명 중 1명이 동성 간의 성 접촉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성 간의 성 접촉 경험은 키스, 애무,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교류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의 중고생들이 동성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 접촉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성 간의 성 접촉을 경험한 청소년들보다 음주에 노출될 위험이 284배, 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424배나 높았습니다. 동성 간의 성매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 남학생들이 성인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카페, 동성애 어플을 통해 아주 쉽게 동성애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은 정서적, 사회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 아이들 스스로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교회와 가정이 도와야 합니다.”

Q 차세대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노: “충격적으로 들리실 텐데 대체로 동성애를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반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했는데 단 한 명만 손을 들었고, 손을 든 그 학생은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세대들은 동성애를 보호해야 할 소수자의 인권이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거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동성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아쩔 수 없이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 친구가 사랑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 사랑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차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동성애를 다룬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교회와 성경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학생이 그대로 성장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김: “맞습니다. 저도 강의 현장에서 만난 차세대들에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인데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기를 이야기하며 지금은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비새 없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왜 동성애는 여전히 반대하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차세대들에게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노: “그들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는 이 의식이 성인들보다 강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였는데 동성애자 친구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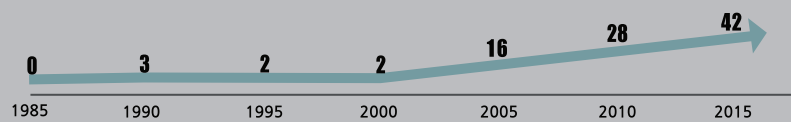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친구인데 왜 징계를 내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지 의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신앙에 괴리가 온 것입니다. 그 학생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친구가 동성애자임을 폭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며 인연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동성애 문제는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헤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때는 목회자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 “동성애를 하고 있는 대상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도 분명히해서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크리스천이라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동성애에 빠진 친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싶은 마음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지혜롭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동성애가 가져오는 심각한 현실이 무엇인지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면서 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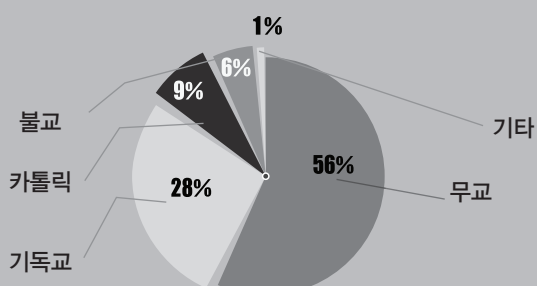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에게는 조금 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10대 에이즈 발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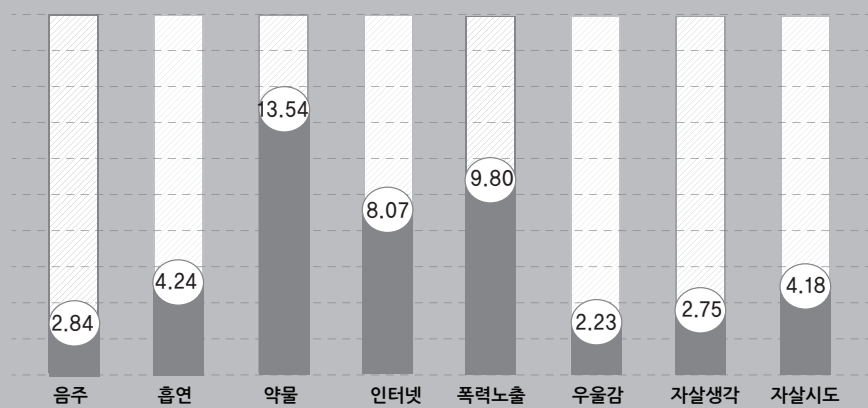


청소년 동성애자 종교별 분류 (13~23세 105명,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동성간 성접촉 중고등학생의 위험도(이성간 성접촉 대비)

출처: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5년치(2008~2012) 분석
서울삼성병원(국제학술지Medicine게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 합니다. 도리어 반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자세만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을 주라 하신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이해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 합니다.

동성애의 객관적 위험성을 알려주고 경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동성애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건강당국 통계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항문암 발병률이 17배나 높고, 미국 청소년 에이즈의 90퍼센트 이상이 동성 간 성행위로 일어났다는 통계치, 2007년 필라델피아 학회에서 발표된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24년 빨리 죽는다는 내용 등 동성애의 객관적 위험성을 알려주고 경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이후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Q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나요?

김: “분명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흔히 레위기에 나오는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으며 유독 동성애만 죄라고 하냐고 따집니다.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어진 특별한 시민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구약의 율법이 무너졌다는 동성애자들도 있는데 분명 신약(고린도전서 6:9, 디모데전서 1:10, 로마서 1:26, 27)에서도 동성애는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성애 외에도 수많은 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들은 반드시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살인, 동성애 모두 똑같은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동성애를 인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을 무시하고, 사랑을 짓밟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도 다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Q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노: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가정의 역할입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건강한 성정체성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건강한 성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정확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이 없다면 자녀들의 세계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잘 크겠지’, ‘교회에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올바른 성역할이 붕괴되면 이 틈을 동성애가 매꿀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성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성(性)에 대한 감사, 엄마, 아빠의 역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부모, 친구,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만약 그 중요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도 성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반항심으로 동성애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 스스로 성경적 기준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김: ““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신 6:6~7).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구절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동성애를 입에 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쉬쉬하다 보니 교회 다니는 차세대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대놓고 옹호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데 왜 동성애를 차별 하나며 신앙에 괴리도 느낍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도둑질이 죄라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죄는 죄라고, 선은 선이라고 바르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선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자 타고난 성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혹은 여자로 태어나서 힘들다는 불평의 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고난 성별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들, 즉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남자면 남자라서, 여자는 여자라서 타고난 그대로를 감사해야 합니다. 여성적인 모습이 있는 아들, 남성적인 모습이 있는 딸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점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이분법적인 성역할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 진짜 잘못된 성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Q 교회에서는 어떻게 도와 줄 것입니까?

노: “차세대들이 성과 동성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에서 성이 금기시 되는 이유는 교회적인 문화가 아니라 유교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등부에서는 성과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중등부와 아동부에서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다며 떠나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크는데 왜 교회에서 나서서 동성애를 알려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덮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차세대들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르고 지나가면 건강하게 크는 시대가 아닙니다.

차세대들은 동성애를 정말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동성애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차세대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달에는 동성애 근절 전문 강사를 모시고 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동성애에 대하여 꾸준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김: “교회의 역할은 동성애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차세대들이 동성애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먼저 동성애 문제를 직면하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어른들이 먼저 바로 알아야 아이들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 언급은 못하지만 동성애의 객관적 결과물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 심각성을 어른들이 차세대들에게 교육하여 차세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곳은 지금으로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성애의 보편적인 문제점, 동성애 법제화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깨우치는 정보 공유와 교육, 세미나, 포럼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할 수 없다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교육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선물하다

CMN 드림팀, 여성용품 나눔 및 제작방법 교육

“왜 지금껏 직접 만들어 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스리랑카 아웃리치 현장에서 만난 한 여성이 무릎을 쳤다. 의료선교팀 CMN 이 면으로 만들어 선물한 여성용품을 보고 한 말이다. 생리대 문제는 우리나라 저소득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배고프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에게는 더 고달프고 쓰라린 문제다. CMN 드림팀은 이 같은 문제에 착안해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스리랑카 해튼(Hatton) 지역에서 실시한 아웃리치에서 아웃리치팀 최초로 여성교육을 실시했다. CMN 드림팀 소속 정수경 성도가 고안해낸 면으로 만든 여성용품을 나눠주고, 제작방법을 교육했다. 위생교육도 실시했다. 환자 1,200명을 진료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은 덤이었다. 어린이 사역과 이·미용사역, 돌보기 나눔 사역도 빼놓지 않았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스리랑카 여성들에게 여성용품을 나눠주고 제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CMN 드림팀이 아웃리치를 간 스리랑카 해튼 지역은 해발 1,300m의 고산 지역이다. 홍차가 유명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 홍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역사가 있다. 스리랑카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200년 전 질 좋은 홍차를 수확하기 위해 타밀족을 이곳으로 강제이주 시켰다. 타밀족은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에서 제외된 불가촉천민으로 고된 노동과 박해, 차별을 견뎌야 했다.

“타밀족은 수없이 많은 경제적, 정치적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권이 없었고요. 지금도 평균 임금의 3분의 1 정도의 돈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차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CMN 드림팀 우승엽 팀장은 타밀족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지 수없이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흘린 눈물 단 한 방울만이라도 닦아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합선물세트였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다. CMN 드림팀은 NGO더멋진세상과 협력해 정말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의료사역, 위생교육, 어린이 사역, 이·미용 사역, 돌보기 나눔 사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가 준비해 간 다양한 사역들을 모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역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의 아주 조그마한 헌신과 사랑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주민들의 가슴에 복음의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만큼 대기시간도 길어졌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차레가 올 때까지 한 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평소에도 의사 만나기가 힘든 사람들이데 아웃리치 온

CMN 드림팀 소속 의사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현지 홍차공장 사장이 근무시간을 단축해줬다.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더니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니까요.”

“이거대!”

수많은 사역이 진행됐지만 현지인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은 여성교육이었다. 여성교육은 여성들에게 면으로 만든 여성용품을 전달하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이 사역은 정수경 성도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그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다. 지금껏 아웃리치를 18번이나 다녀왔다. 그녀는 아웃리치 현장에서 재능을 살려 수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밀림이나 오지를 가면 수학을 가르쳐줄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미용사역이었다. 이·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의료봉사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러다 이·미용사역을 생각해 냈어요. 처음에는 단골 미용실을 찾아가 흉내 낼 정도의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는 미용학원을 다녔어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집사님께 2달 동안 실전기술도 배웠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미용 기술을 가진 성도들이 아웃리치에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미용사역도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강행군해왔던 터라 몸도 몹시 지쳐있었다. 쉽다고 생각한 사역이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1년 반 동안 아웃리치를 가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선교지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했다. 그녀는 한시도 의료봉사를 잊어본 적이 없다. 늘 의료봉사를 하고 싶었다. 그런 그녀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를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NGO단체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면으로 만든 여성용품을 선교지에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같은 여자로서 생리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왜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여성들의 위생환경이 아주 심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교지 사정도 그때와 마찬가지로일거리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일회용 여성용품은 가격이 비싸고, 선교지까지 가져가기도 힘들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면으로 여성용품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다. 순간 손뼉을 쳤다.

“이거대!”

“타밀족은 차별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다가 가부장적인 사회라 여성들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타밀족 남성들은 일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하루 14시간씩 한 달 동안 일하고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용품을 사서 쓰겠어요. 천으로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타밀족 여성들에게 면으로 만든 여성용품을 반드시 필요했다. 그녀는 타밀족 여성들에게 면으로 여성용품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동대문으로 달려갔다.

“재봉틀도 있겠다, 땀방에 해당하는 심정으로 친구와 동대문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원단을 구했어요. 그렇게 면으로 여성용품 60개를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힘들고 복잡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후회를 한 적도 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맞는지 두렵기도 했다. 흔들리는 그녀에게 가족들이 버팀목이 돼 주었다. 특히 어머니가 일등공신이었다.

여리를 가나 꼭 필요한 사역

그녀는 25만원으로 여성용품 60개를 만들고, 14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들고 아웃리치를 갔다. 과연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됐다. 현지 여성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여성들에게 여성용품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해줬어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면으로 만든 여성용품은 최고의 인기였다. 제작방법도 알려줬다. 스리랑카에는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있었고, 재봉틀이 없으면 바느질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

“방법만 알면 면 티셔츠나 수건 같은 것으로 여성용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제작방법을 배우는 것도 무척 쉽고요. 반영구적이라는 장점도 있어요. 아웃리치를 어디로 가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선교지에서 면으로 여성용품을 만들어 나눠주고, 제작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역이 자리매김하기를 소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 하나를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만 모여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앞으로 이 사역이 자리 잡히도록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문의: 02-3215-3786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대학청년부 단기선교 프로그램 FA

(Frontier Agency)

1개월 합숙훈련, 5개월 전방개척지역 선교

우리나라 청년들은 1분 1초가 아깝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통계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86.8%가 "스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다양하다. "지원 자격에 못 미치는 스펙을 가졌다"가 60.1%로 가장 많고, "고스펙 보유자가 너무 많다"가 49.9%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살벌하고 치열한 시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청년들이 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 12:1)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보석 같은 청년들이다. 그 주인공들은 청년 단기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 헌신자들이다. FA는 35세 이하 청년들이 전방개척지역에

나가 직접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지금까지 청년 선교사 172명이 헌신했다.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프랑스, 튀니지, 터키 6개국을 다녀왔다.

FA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6개월 코스로 진행된다. 처음 1개월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기초 훈련(Basic Training)을 받고, 5개월은 사역지에서 언어, 공동체 합숙, 선교훈련(Field Training)을 받는다. 주로 3~4명이 팀을 이루어 선교한다. 현지에서 만난 청년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면 3일 동안 사역보고(Debriefing)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2월 10일부터 FA 12기가 훈련에 들



FA11기 청년들이 선교지 아이들과 함께

어갔다. 3월 3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합숙훈련을 받는다. 선교현장에는 3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머물게 된다. FA에 직접 헌신하지 않아도 재정과 기도후원으로 전방개척지역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FA 중보기도회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의: 070-4464-8105

후원: 하나은행 573-910009-62805

(예금주 FA간사)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청년 선교사들에게 FA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홍진석 형제
(하늘공동체)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들은 김건희 대표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분은 아이들과 매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

셨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계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청년 단기선교 프로그램 FA 홍보영상이 나왔고 신청

하게 됐다. FA는 타국에서 사역을 한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언어가 가장 힘들었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잘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언어 훈련을 했다.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FA에서 경험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간절함이 생기고, 그 간절함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발견했다.

“특권이다”



최영신 자매
(SNS공동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선교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더욱 그랬다. 언제 떠날 수 있을지 막연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FA 11기에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주셨다. 무엇보다 선교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 기쁨도 잠시, 훈련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의 연약함에 부딪쳤다. 어떤 사역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것이 힘들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더욱 그랬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신기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 팀원들을 넘어 현지인들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FA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세위 가심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FA를 다녀온 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리라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

“최고의 기회다”



박소연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나에게도 33살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셨고, 가장 빛나셨을 때가 33살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이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기도했다. 하나님은 FA 10기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셨다.

FA에서 나는 내 자신과 마주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에 대

한 오해가 쌓여있음을 알게 됐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었다.

FA 10기가 나를 보게 했다면, 11기는 누리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기쁨으로 누렸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년들 모두가 FA를 다녀오면 좋겠다. 그곳에서는 내면을 많이 보게 된다.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대면하는 것도 은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든든한 기도 후원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함께하는 것이다”



우신임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님들 덕분에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나도 그들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다.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선교에서 나의 부족함이 보였다. 재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하셨다. 각

각의 달란트를 가진 팀원들이 어우러지도록 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이 FA라고 생각한다. 현지에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차원이 달랐다. 더 높고, 깊고, 넓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이다. 바로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하는 것을 꺼려했었다. 나를 드러내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A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공동체 생활이 기대된다.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신약에 헛갈리는 이름의 왕이 등장해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했던 장본인 ‘헤롯(Herod)’ 왕이에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등장하는 헤롯 왕은 사실 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사실 헤롯 왕 집안은 토종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100년이 넘도록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의 왕좌를 계승했다는 것이 놀랍지요. 아랍의 쌍둥이 형 에서를 기억하나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헤롯 왕가의 시작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인 안디바 2세예요. 한시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인으로 귀화시키는 정책이 있었을 때 약삭빠르고 야망이 큰 안디바 2세가 이스라엘 국적을 얻었고, 당시 패권을 장악한 로마의 신임을 얻어 유대의 총독까지 되죠. 그의 둘째아들이 신약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친유대인 정책을 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었어요.

힘겹게 왕좌에 오른 헤롯 대왕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의심병’이었어요.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것 같은 낯선만 보이던 가차 없이 제거했어요. 아내는 물론이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루스까지도 죽여 버렸어요. 그런 그였기에 동방박사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전국의 두 살 이하 사내아이들을 죄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결국 헤롯 대왕은 허망하게 병들어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세 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나눠 통치하게 되는 ‘분봉왕 제도’가 생겨나게 되죠. 포악한 아버지를 보고 배운 헤롯 아켈라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통치하다 쫓겨나고, 헤롯 안디바가 집권해요. 이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랍니다. 헤롯 안디바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에게 반해서 제수씨를 아내로 삼는 패륜을 저질러요. 술자리에서 춤을 춰 자신을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자기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는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허풍을 떨다가 그만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는 예수님과 얽힌 사건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죽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의 헤롯 왕에게 학살당하는 아기들(Le massacre des innocents).

이려했고, 양심 있는 척하다가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를 ‘여우’(눅 13:32)라고 책망하기도 했죠. 자신의 욕망에 이끌린 그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코앞에서 만나고도 회롱하고,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게 돼요. 그도 결국 로마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헤롯 아그립바 1세가 뒤를 잇게 돼요. 아그립바 1

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수완이 좋고 야망이 커서 로마황제 클라우디오의 신임을 얻었고, 할아버지 때 통치하던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통치하게 되지요. 그는 유대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행 12:1~2), 베드로 사도까지 옥에 잡아 가두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왕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아그립바 1세의 최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평소 별로 달가워하지 않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아와 신(神)이라고 추켜세우며 환호했을 때 아그립바 1세는 그 영광을 다 취했고, 그 결과 주의 천사가 내려쳐 별레에 먹혀 죽고 말아요(행 12:23).

아그립바 1세가 죽은 후 아그립바 2세가

그 뒤를 잇는데 그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여정을 걷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법정 에 넘겨졌는데 당시 유대 총독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안 그였지만 복잡한 문제에 얽히기 싫어 바울을 감옥에 넣어둔 채 퇴임을 하고, 후임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재판을 맡게 돼요. 이 무렵 아그립바 2세가 신임 총독을 문안하러 왔을 때, 재판관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듣게 되지요.

“아그립바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행 26:27).

총독과 왕 앞에서도 거침없는 복음의 사자후(獅子吼)를 내뿜은 바울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해요. 그 후로 험한 세월을 보내던 헤롯 아그립바 2세는 로마에 의해 정리 되고, 헤롯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막을 내리게 돼요. 헤롯 왕가는 인류 전체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들과 맞물려 대답하다가 가장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가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고난과 부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이들 헤롯 왕가의 집권 시기였어요. 야망으로 뽕뽕 뭉쳐 세상의 권세를 탐했고, 왕의 자리를 내놓으려하지 않았던 헤롯 가문은 결국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그

토록 없애려했던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기고_ 내가 만난 하나님

일본 오이타를 2015년에 처음 방문했다. ‘리브소나타 오이타’를 섭기러 갔었다. 내가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리라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갈 기회가 생겼다. 올해 대학부 겨울 아웃리치 지역으로 일본 오이타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다.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오이타는 일본의 어느 지역보다 빨리 복음이 전파된 곳이지만 수많은 박해가 있었다. ‘키리시탄’(크리스천의 일본어 표현)이라는 이름이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땅이다. 선교사님들의 땀과 피가 어려 있지만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부담감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함께 아웃리치 가는 팀원들도 나와 동일하게 무거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여러 번의 기도도와 모임, 준비 끝에 드디어 일

본 오이타 현지 교회에 도착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열악한 잠자리와 조율되지 않은 사역들이었다. 현지인들과의 만남도 무산되었다. 팀원들에게 열심히 하자고 독려했던 나의 마음이 배반당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지체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배신당한 것 같았다. 인솔하고 있는 나도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데 팀원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울까하는 생각에 그들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팀원들을 마주한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꼬이기만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팀원들은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다.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팀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우리에게 조율되지 않은 사역이나 불편한 잠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날부터는 현지인들과 만나 식사교제를 했다. 벳부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이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셨다. 그들을 뜨겁게 품게 하셨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현지 목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고친 것이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오이타와 벳부 지역 성도들을 초청해

작은 리브소나타를 개최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일본 성도들을 끝까지 품을 것을 결단하게 하셨다. 일본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적으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일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자고 다짐했다.

아웃리치는 항상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다. 그 선물은 참여하는 자들만 얻을 수 있다. 그 놀라운 선물을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배행삼 전도사
(하늘대학부)

한동대 신축 기숙사 '하용조관' 개관

27일 오후 2시 준공예배

한동대학교 신축 기숙사 '하용조관' 개관식이 열린다.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 한동대학교(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하용조관 1층 로비에서 준공예배를 드린다.

이날 준공예배에는 이형기 사모를 비롯한 하용조 목사 가족, 이재훈 담임목사, 두란노서원 경영이사 박대성 장로, 양재 온누리교회 권사회, 온누리장로합창단, 한동대학교 학부모와 후원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동대학교 측은 “하용조 목사님은 한동대학교를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게 섬겨주신 분”이라며 “그 사랑과 정신을



한동대 신축 기숙사 '하용조관' 이 오는 2월 27일 개관한다.

기리기 위해 신축 기숙사 이름을 '하용조관' 이라고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054-260-112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감사의 글



김영애 권사
(김영길 한동대 명예총장 사모)

1978년 12월, 남편이 미국에서 귀국해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한지 며칠 지난 때였다. 남편은 흥릉과 학단지 과학자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하용조 목사님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의 평생에 걸친 소중한 만남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7년 뒤 1985년,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남편은 당시 제자훈련을 받던 몇 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온누리교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 목사님과의 만남은 후일 한동대학교 초대총장으로 서 남편이 펼친 교육적 가치관과 영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남편은 “교회에서 7년 동안 양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 선교지로 가라”는 하 목사님의 설교에 강한 도전을 받았고, 온누리교회 1호 장로로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1994년 1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는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 제안을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

그런데 몇 달 후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재단 이사장의 기업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한동대학교 개교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하 목사님과 남편은 학교를 맡아줄 기독교 실업인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교 날짜가 임박했다. 개교를 위해서는 교육부 예치금 30억 원이 당장 필요했다. 이 모든 사정을 들은 하 목사님은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셨고, 온누리교회에서 종자돈으로 9억 원을 헌금해 주셨다. 그 돈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았고, 가까스로 한동대학교 개교 인가를 받게 되었다. 당시 하 목

사와 온누리교회의 후원이 없었다면 한동대학교는 개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개교 첫 해인 1995년 12월, 하 목사님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한동대의 이사장직을 떠맡으셨다. 재정적인 위기로 다급해질 때마다 학교가 기댈 언덕은 하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밖에 없었다. 아사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듯이 하 목사님은 학교의 부도를 막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꾸어 어음을 막아 나갔다. 총장과 이사장이 고발을 당해 검찰조사를 받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하 목사님은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다.

“한동대학교를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임을 확신합니다.”

한동대학교가 숨 가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자 하 목사님은 이사장직을 내려놓으셨다. 퇴임식에서 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동대학교 이사장직을 맡았던 지난 10개월은 제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인재 양성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투자하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한동대학교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이사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한동대학교와 한동인들을 향한 하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 열정은 고스란히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전염이 되었다. 온누리교회는 지금도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11월이면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비전헌금으로 한동대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한동대학교

의 첫 입학생이면서 1997년 피지에서 순교한 강경식, 권영민 동문의 선교 정신을 기리는 ‘한동홀’이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에 각각 있고, 양재 권사회는 해마다 자선장을 열어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농어촌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후원하고 있다.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동가디언스’ 모임도 있다. 한동대학교가 개교하던 1995년 외국 교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두 동을 온누리교회가 건립해주었다. 게스트하우스를 무료로 설계해 주신 장로님, 효암체플을 건축토록 후원해준 집사님 가족, 효암체플에 그랜드피아노를 기증한 장로님, 먼지바람 이는 빈터에 ‘비전광장’의 잔디를 입혀주신 권사님, 아껴 모은 생활비 1억 원을 기부하신 권사님, 퇴직금을 기부하신 장로님, 결혼 축의금을 송두리째 기부한 신혼부부, 소천하신 모친 부조금을 기부한 장로님, 7년 여 간의 한동대 고소고발사건들을 무료 변론해 주신 장로님,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기부하신 집사님, 평생 근검절약해 모은 100억 원을 쾌척하신 장로님, 수십억 상당의 땅을 기증한 권사님, 그밖에 수많은 갈대상자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온누리교회 후원자들이 유난히 많은 것은 한동대학교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하 목사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온누리교회와 하 목사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동대학교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헌신은 대를 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도 하 목사님 못지않은 신실한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역해주고 계신다. 우리 한동인 모두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빚진 자들이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한동의 역사에 이 모든 사실들이 날날이 기록될 것이다.

온누리 아트비전 제5회 정기전

온누리 아트비전이 제5회 정기전을 열고 있다. 2월 26일까지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햇빛트리니티갤러리에 서 ‘하나님의 꿈’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온누리 아트비전 소속 미술인 24명의 사진, 서예, 설치, 서양화,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45점이 전시되어 있다. 황혜성 팀장은 “언어를 넘어서는 그림의 힘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19기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온누리회복사역에서 실시하는 ‘19기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대상이다. 어린이하트스쿨 양재 총성홀, 부모하트스쿨은 양재 JDS홀에서 3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접수비는 1만원, 회비는 어린이하트스쿨 12만원, 부모하트스쿨 1인당 5만원이다. 문의: 이현대 전도사 010-5415-3879

온누리장로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온누리장로합창단에서 3월 30일까지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찬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오디션은 없다. 서병화 장로는 “장로합창단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다른 장로님들과 친분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더 많은 장로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8730-6188

안산M센터,봉사자 모집

안산M센터에서 탁구 봉사자와 베트남예배 반주자를 모집한다. 탁구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거나 스태프로 섬겨줄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안산M센터 305호에서 드린다.

문의: 탁구교실 031-491-9650

베트남예배 010-3708-7926

2017년 2차 선교사 파송

아리엘, 수산나(중동 O국)	바나바, 마르다(중동 D국)
복음, 하나(중동 O국)	정세움(중동 Q국)
김제자, 임재(남아시아 I국)	주소망(르완다)
유누가, 박사라(남아시아 I국)	랏나(스리랑카)
김바울, 손애희(동아시아 B국)	김광모(독일)
손모아(아프리카 G국)	김사라(독일)

평양남노회 목사후보생 고시

일시: 3월 21일 오후 1시 예정

장소: 방주교회(02-586-9191)

시험과목: 구약, 신약,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면접
구비서류: 첫 응시자(청원서, 이력서(사진첨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확인서,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세례확인서: 교회에서 발급함), 재 응시자(유효기간 3년, 청원서(상단기록: 불합격날짜, 재시|or|삼시), 이력서(사진첨부) 각 1부)

신학생계속청원: 신학생계속청원서 1부(장신대 재학 중인 파트전도사 해당, 3학년 제외)

전도사고시 준비서류: 청원서, 이력서, 당회장추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교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시험과목: 구약, 신약,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정치, 면접
제출처: 목회행정실(서빙고), 2월 23일 오후 5시까지
문의: 김경렬 간사(02-3215-3234)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간증



/ 나기정 성도(OCC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2016년 2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할 때였다. 성경이 궁금해서 매일같이 붙잡고 있는데 쉽게 읽히지 않아 답답했다. 그때 일대일 제자양육을 알게 되었다. 마침 크리스천 CEO 과정에서 만난 성도님께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기도해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조금 어색했다. 다른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세상 속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깊은 배려와 위로가 매일같이 감동으로 전해졌다. 틈만 나면 양육자님을 찾아갔고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휴식을 취했다. 너무나도 평온했고, 이것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기쁨이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생각에 천국소망이 무척 간절해졌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졌다. 양육자님과 함께 새벽예배도 다니게 되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을 하면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던 중에 가족과 가정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 전 남편이 하나님

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것을 몰랐다. 딸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기도 끝에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다. 남편도 나와 헤어져 있던 2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는 기도로 다시 만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뤘다. 둘째도 가졌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기쁨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다. 창업 3년 차로 여러 가지 역경을 겪었다. 나쁜 유혹도 많았다. 이 모든 것을 양육자님과 나누었고 조언을 요청 드렸다. 양육자님은 매번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신기하리만큼 그 답들을 통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둔 정의와 편견으로 판단하기 쉬운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배운 가장 큰 지혜다. 모든 응답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교회가 집보다 편해졌다. 혼자 성경을 공부해야 했고, 등록도 혼자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C·E 선교사(동아시아 A국)

작은 기적

나는 병원을 참 싫어한다. 환자들을 보는 것도 힘들고, 병원냄새도 역겨워한다. 그런 내가 요즘 병원사역을 한다. 환자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 우리 병원에는 투석환자와 호스피스 환자들이 많다. 갖가지 사연과 어려움을 안고 오는 사람들이다.

12살 소녀 D는 호스피스 병실에 누워있다. 불치병인데다가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B선교사의 수고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손발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 웃으며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인데 말이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수줍은 소녀의 미소로 세상을 밝힐 나이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 소녀는 지금도 차디찬 침대에 혼자 누워 어둠을 헤매고 있다. 약 기운에 얼굴은 통통 부었고 비뚤어져 있다. 양 발과 양 손은 절단된 채 몸뚱이만 남아 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앓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다.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심하다. 짓물러 있다. 그 아이의 몸부림치는 울부짖음을 매일 들어야 한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참 아프게 한다.

환자 E는 목에 김스를 한 채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 한 달 전 이곳의 수도에서 기독교 컨

퍼런스가 있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척추와 목뼈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환자들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아파하게 된다. 환자의 손을 멀리하던 내가 이제는 환자의 손을 꼭 잡는다. 초췌하고 앙상한 환자의 얼굴을 피하던 내가 이제는 그들을 가까이 한다. 그들을 위해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기적 외에는 그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큰 기적보다 작은 기적들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쁨일 지도 모르겠다.

우리 병원에는 매일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 소녀 D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예수님을 찾는다. 가끔 해맑은 웃음이 얼굴에서 번져 나오는 기적도 일어난다. E의 얼굴도 변하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의 눈빛이 평안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작은 기적들이 매일매일 병원을 수놓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작품들로 벽을 장식하려고 한다.

“예수님, 당신의 작품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입교 간증



/ 이다은 자매(하늘공동체)

우리 할머니와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으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외할머니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깨닫게 됐다. 정말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 소망을 품으며 중학생이 되었다.

매일 새벽 할머니 방에서 들리는 기도소리가 단잠을 자던 나를 깨우곤 했다. 할머니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곤 하셨다. 본인의 삶으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보아셨다. 그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나는 항상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함께 교회에 갔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기도소리를 자장가 삼아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할머니의 건강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시더니 가족들 곁을 떠나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슬픔을 처음 느꼈다.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한 할머니를 왜 이렇게 데려가셨나고 원망도 했다 그 원망을

시작으로 모태신앙인에서 ‘못 해 신앙인’으로 바뀌었다. 말씀은 습관처럼 읽었고, 기도하는 내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었다. 예배도 나를 위한 것이었다.

고등학생 때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모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 일단 눈을 감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하소연을 했다.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파스함이 나를 안아주었다.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첫 걸음마를 땔 때도 함께 기뻐하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들었을 때도 함께 슬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받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돌아켜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그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다. 그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손만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예수제자학교 JDS 수료 간증



/ 서은희 성도(신촌장로교회)

많이 울고, 감동하고, 격려 받고, 깨닫고

지난해 3월 친구의 간곡한 권유로 예수제자학교 JDS에 입학했다. 궁금했던 한 가지 답을 꼭 찾고 싶었다. 과연 내가 고단한 삶 속에서 원망하고, 모든 척하고, 미워했던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느냐는 궁금증이였다.

예수제자학교 JDS는 아름답고 정갈했다. 무엇보다 간사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돋보였다. 볼 때마다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안타까워 해주셨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뵈는 것처럼 좋았다. 마음의 상처가 하나씩 치료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를 주시는지 정말 감사했다.

예수제자학교 JDS 과정은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로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성경암송과 일독, 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우고, 내적치유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을 해외 아웃리치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 많이 울고, 감동하고, 격려 받고, 깨달았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 내 어깨에 지운 짐이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방황하고 아파했다. 그 때마다 한 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예수제자학교 JDS에서 만났다.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못난 모습을 절대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계심을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평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로 누리고 즐기라는 메시지를 들은 것도 정말 좋았다. 다양한 주제로 매번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강의와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귀한 사랑으로 어느새 내가 밝고 편안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봄꽃처럼 화사했던 순간, 뜨거운 여름 찬양하며 전도했던 순간, 모든 것이 추억으로 접어지는 가을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나처럼 아팠던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서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는 예수제자학교 JDS의 귀한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장로칼럼

꼭 필요한 훈련 '전도폭발'

이태열 장로
(마포공동체)

내가 전도폭발 훈련을 섬기기 시작한지 벌써 6~7년 정도 되었다. 처음에는 전도의 '전' 자도 몰랐다. 온누리교회에 전도폭발훈련이 있는지도 몰랐다.

당시 공동체 목사님과 장로님이 나에게 공동체 전도사역자 역할을 맡기셨다. 전도사역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섬겨야하는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맡았다.

1년이 지나고 내 안에 자괴감과 미안함, 열등감이 생겼다. 1년 동안 전도사역자로서 아무런 변화나 열매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예수님 잘 믿으라는 권면 정도의 말밖에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전도사역자로서 한계와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잠시 교회에 들렀다가 우연히 전도폭발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았다. 스쳐 지나갈 수 있던 광고였지만 내 눈에 쏙 들어왔다. 그동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전도폭발훈련을 신청했다.

나중에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자리에서 용기 내어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훈련을 받았다. 사실 전도폭발훈련이 4단계까지 있는 줄도 몰랐다. 8주만 훈련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훈련 받았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 자기(self)가 폭발을 하는 경험을 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기 전의 나는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친 상태였다. 교회와 세상에서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살았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예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때부터 달라졌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아내가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라고 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로 들려서 정말 기뻐했다.

나는 전도폭발훈련을 차세대 교사들에게 권하고 싶다. 전도폭발훈련 주간반 팀장님의 경우 초등부 교사로도 섬기고 있는데 전도폭발훈련에서 배운 내용과 교재를 이용해서 차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라는 말로 단순히 전하기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중요한 존재다. 그냥 예뻐만 하기보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 알기 쉽고 정연하게 알려줘야 한다. 교회 직분자들도 전도폭발훈련을 들었으면 좋겠다. 순장님, 다락방장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꼭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예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새가족, 순원, 믿지 않는 지인이나 가족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 바로 전도폭발훈련이다.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건강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문의: 02-3215-3214

권사칼럼

기도하는 어머니

장애자 권사
(성북공동체)

밖을 보니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잿빛하늘이다.

32년 전 남편의 인도로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처음 3년 동안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신앙생활이 조금씩 나의 영육을 강건하게 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이어 큐티(QT), 말씀, 기도, 성도와의 교제 등 수많은 훈련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나를 발견했다. 다양한 사역을 섬기면서 다듬어져 가는 나의 모습에 깜짝 놀란 적도 있다. 섬기는 것이 너무 즐겁고 보람 있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다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 갈 때면 이 말씀을 붙잡았다.

“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 분이 네 갈 길을 알려 줄 것이다”(잠 3:5-6).

내가 섬긴 많은 사역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사역이 있다. 바로 호스피스 사역이다. 원자력 병원 동관에 ‘어린이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병동이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엄마가 있다. 그녀는 낮에 잠을 자고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끌고 나가 장사를 했다. 밤새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아기를 돌보지 못하고 잠을 청했다. 경제적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아이 치료를 위해서는 밤새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녀를 대신해 호스피스들이 그 아기를 돌보았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매일 함께 기도했던 그 때의 일들이 지금도 아른거린다. 결국 아기는 하늘 나라로 갔지만 그 엄마의 믿음과 삶이 우리를 먹먹하게 했다. 이렇듯 호스피스 사역은 내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다. 참 고마운 사역이다. 지금도 말기암 환자가 있는 곳이면 저린 가슴을 끌어안고 달려간다.

지난 세월을 모두 하늘로 올려 보내고 앞둔다. 기도로 앞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바란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는 수많은 곳으로 나아가 가슴을 치며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제는 나의 욕심을 털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기를 기도한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야 나의 것을 털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부끄럽다. 이것을 고백하기까지도 쉽지 않았다.

요즘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용기 내어 다가가면 의외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들과 따뜻한 점심 한 그릇을 먹고 자연을 보러 교외로 나가는 차 안에서 웃음이 그치질 않는다. 서로 회복되는 그 시간이 참 감사하다.

새해는 더욱 ‘기도하는 어머니’로 불리는 권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존재감을 주는 권사이기를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신앙에세이

김재승 전도사
(서빙고 차세대)

온누리교회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다양하다. 그 중에 하나가 ‘목회사관학교’라고 생각한다. 매년 기다려지는 프로그램이다. 열심히 달려왔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국내외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박4일 동안 말씀과 기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훈련받고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다. 올해 목회사관학교는 ‘영혼을 살리는 리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주제를 듣고 왠지 모를 기대감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 그동안 5번의 목회사관학교에 참가했지만 이번만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했던 적은 그리 많지 않

았던 것 같다. 그동안 나는 목회사관학교에서 받는 은혜가 좋긴 했지만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시즌에 3박4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빼야한다는 것이 부담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주제를 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풍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특별히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스태프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내가 직접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동역하는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축복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었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나는 그동안 관심을 갖고 개발해왔던 분야인 영상을 담당하게 되었다. 목회사관학교 시작하기 두 달 전부터 상영할 영상들을 기획하고,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강의 영상을 미리 접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이번 목회사관학교

설렘과 기쁨, 감사와 회복

를 향한 기대감이 더욱 충만해졌다.

드디어 목회사관학교가 시작됐다. 목회사관학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들을 동영상으로 담아 스케치 영상을 제작했다. 무거운 삼각대와 카메라, 렌즈를 어깨에 걸쳐 메고 촬영했다. 목회자들의 표정을 하나라도 놓칠 새라 정말 열심히 찍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카메라 뷰파인더에 담긴 목회자들의 표정 하나에서 설렘과 기쁨, 감사와 회복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 이것이 목회사관학교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구나!”

그들의 밝고 즐거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분주함과 힘든 시간들이 위로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사역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나 자신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었다. 정말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다.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

님께 감사했다.

파트사역자로 3년, 전임사역자로 3년을 온누리교회에서 지냈다. 6년 동안 사역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이루어내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던 지난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동료 목회자의 영혼, 내 영혼, 내 가족의 영혼을 살피지 못하고 등한시했던 모습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해 나가야할지 새로이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목회자, 영혼을 살리는 것을 고민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주인보다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었습니까?”(24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었다면 꼭 자신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신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꼭 내가 일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모세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니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보다 덜 위대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함 넘어 선한 삶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대신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27절).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을 왜 보게 합니까. 만약 모세의 마음이 꼬여있다면 가지도 못하는 땅을 바라봐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

신의 뜻과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룹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밟는 것보다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라는 것은 그 땅을 밟아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선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와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네가 이 일을 바라보고 추진했지만 그 일의 성취는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있다. 너는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일 수 있어도 그 비전을 마무리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영역이건 삶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대꾸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조치에도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이룬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 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땅에 꼭 들어가야겠다고 불순종했다면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추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은 남겼지만 선한 인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바라보기만 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합니다. 마지막 열매를 내가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

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순종함이 없다면, 약속의 땅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바라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순종하고 있다면 그 땅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여러 번 테러와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테네시주의 멤피스의 한 연설에서 모세의 마지막 경험을 인용해서 심정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힘든 날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산꼭대기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느 사람처럼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나를 중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산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한 민족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눈은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쩌면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땅을 밟느냐 못 밟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는 것까지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그 사람이 그 땅을 밟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것이 위대함을 넘어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 땅의 동서남북을 눈으로 바라보며 중보기도 한 그대로 백성들과 후대들이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의 사명이 다음세대들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세처럼 비전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칼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분단의 아픔이 크기에 통일에 대한 염원도 크다. 우리의 근대사를 돌아켜 보면 분단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발생 되었다. 통일도 순식간에 올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이지만 딱 하나 정답이 있다. 통일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나도 통일이 그저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다. 내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선교사 ‘David E. Ross’의 글을 읽으며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1979년 2월 24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반도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북한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앙상한 뼈 같아 보였고, 남한은 아주 크기는 하지만 속이 찌어 있는 감 같아 보였다. 비무장지대(DMZ)는 먼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남한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한반도 전체 특히 원수와 같이 여기는 북한

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의 내부도 찌어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더 나아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을 사단의 나라로 여길 뿐 아니라 그에 의한 위험감까지 느껴 하나님께서 북한에 부흥을 가져오시리라 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북한은 속이 텅 빈 앙상한 뼈 같지만 남한의 번영에 태를 제공한 어머니와도 같은 나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을 능히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부흥을 위해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부패와 불순종의 자세를 먼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야 에스겔처럼 마른 뼈에 성령을 불어넣어 생명을 갖게 하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가 남북한 위에 가지를 드리우고 있는 장면을 보여 주셨다. 그 나무뿌리

의 한 쪽은 성령의 물인 바다 속에, 그리고 다른 한 쪽은 하나님의 말씀인 땅에 박혀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강력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 계시해 주셨다. 그 ‘부흥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였고, 누군가 그 나무를 흔들었을 때, 그 열매는 일본, 중국, 러시아(특히 러시아 동부), 알래스카와 대양 남쪽 섬에까지 흩어지며 떨어졌다.”

결국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것은 회개와 사랑이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고,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는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버렸습니다. 분열하고 반역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통일이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랑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통일된 새 나라를 통해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영각 장로
(통일위원회)

회개와 사랑

2017 온누리교회 찬양팀원 모집

◆ 서빙고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6:50	주찬양	주일 오전 5:20~6:30 수요일 오후 7:00	시간 : 2월 19일(주일) 오전 8:30 2월 26일(주일) 오전 8:30 장소 :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곡목 : 찬송가 중 자유곡 1곡(1절만)	임인숙 총무 010-2796-3100
	챔버	주일 오전 6:00 성가대 연습실	시간 : 2월 19일(주일) 1부 예배 후 2월 26일(주일) 1부 예배 후 모집 : 비올라, 첼로, 베이스 조건 : 전공자	정은미 팀장 010-6668-3056
2부 09:00	주사랑	주일 오전 7:20~8:40 목요일 오후 7:30~9:30	(1 차) 시간 : 2월 23일(목) 오후 7:00 3월 2일(목) 오후 7:00 장소 : B101호(성가대실 옆방) 곡목 : 아-자유곡 1곡 남-자유곡 1곡 (2 차) 시간 : 2월 26일(주일) 오전 10:30 장소 : B101호(성가대실 옆방) 곡목 : 자유곡 1곡	주익수 총무 010-5223-7534
	주향한	주일 오전 10:00~11:15 화요일 오후 7:00~9:30	시간 : 2월 26일(주일) 3부 예배 후 3월 5일(주일) 3부 예배 후 장소 : 신관 1층 Acts29홀 곡목 : 자유곡 1곡(악보 2부 필참) 면접 : 오디션과 병행 자격 : 공동체 소속 기타 : 1. 화요일 연습 결석 시 해당 주일 섬김 불가 2. 연 2회 수련회 및 아웃리치(해외포함) 1회 이상 참석 가능한 분에 한함	이범규 총무 010-3866-8633
3부 11:30	챔버	주일 오전 9:30 기도모임 주일 오전 10:00 연습	시간 : 2월 19일(주일) 3부 예배 후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 바순, 금관 팀파니 자격 : 전공자	유은경 팀장 010-5598-6219
	온누리워십 콰이어	주일 오전 11:20~1:00 주일 오후 3:30 수요일 오후 8:00	시간 : 2월 26일 주일 4부 예배 후 오후 4:00 장소 : 성가대 연습실 곡목 : 여 - 부르신 곳에서 남 -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김양목 총무 010-2111-4657

◆ 양재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6:50	챔버	주일 오전 6:00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담당자 번호로 연락 시 개별 연락	정다은 팀장 010-5100-3580
2부 09:00	주의빛	주일 오전 7:30 목요일 오후 7:30	시간 : 2월 26일, 3월 5일 오전 10:30 장소 : 두란노홀 곡목 : 자유곡 1곡(악보지참) 및 면접	김진세 총무 010-9491-1171
	챔버	주일 오전 8:00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담당자 번호로 연락 시 개별 연락	김진영 팀장 010-8777-9284
도곡 1부 09:00	주경배	주일 오전 7:00 주일 오전 10:40 목요일 오후 5:30	시간 : 2월 26일 예배 후 장소 : 도곡교육관 곡목 : 자유곡(악보지참) 및 면접	이창수 총무 010-6253-2838
	챔버	주일 오전 8:00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담당자 번호로 연락 시 개별 연락	최연수 팀장 010-3714-6922
도곡 2부 11:30	주임재	수요일 오후 7:00~9:30 주일 오전 9:00~10:30	담당자 번호로 연락 시 개별 연락	김정란 팀장 010-5164-8871
	챔버	주일 오전 10:50		정현애 권사 010-8705-5308
3부 11:30	뮤지컬찬양	주일 오전 10:00 주일 오후 2:00 월요일 오후 7:30	시간 : 2월 19일, 26일 오후 1:00 장소 : 비전홀(식당 옆) 곡목 : 자유곡 1곡(악보지참) 및 면접	박다미 총무 010-2909-4360
4부 13:50	주기쁨	주일 오후 12:00 주일 오후 3:30	시간 : 2월 19일 오후 5:00 장소 : 두란노홀 곡목 : 찬송가 1곡(악보지참) 및 면접	곽지현 총무 010-9896-3654
	챔버	주일 오후 1:15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담당자 번호로 연락 시 개별 연락	박지희 팀장 010-4786-3004
6부 특별한초대 19:00	콰이어	주일 오후 4:00	담당자 번호로 연락 시 개별 연락	한다정 팀장 010-6851-8352
새벽기도회	챔버	매일 오전 4:40~5:10	담당자 번호로 연락 시 개별 연락	이선희 팀장 010-3185-0607

◆ 부천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2부 09:00	주손길	주일 오전 7:40 주일 오후 11:00	수시 모집(곡목 : 자유곡) 장소 : 지하 1층 시온홀	장석철 총무 010-8722-4256
3부 11:30	주높임	주일 오전 9:30 주일 오후 1:40	수시 모집(곡목 : 자유곡) 장소 : 지하 1층 시온홀	석명기 총무 010-4211-1731
3부 11:30	챔버	주일 오전 10:30	수시 모집(곡목 : 자유곡) 장소 : 본당 오디션 일정 : 개별 연락	박사무엘 목사 010-2644-4058
1부 07:00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6:30	수시 모집 (곡목 : 자유곡) 오디션 일정 : 개별 통보 모집 : 싱어, 밴드, 진행	정요한 간사 010-2402-3043
2부 09:00		주일 오전 8:00		
3부 11:30		주일 오전 10:00		
4부 14:00		주일 오후 1:00		정지환 전도사 010-3810-0192
6부 18:00		주일 오후 5:00		
수요 심야 2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해당 요일 오전 5:00	모집 : 반주자, 싱어, 인도자	

◆ 수원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7:00	주순중	주일 오전 6:00~6:50 주일 오전 9:00~10:00	오디션 없음, 면접시 개별 연락	홍성민 총무 010-4735-3515
	주드림	주일 오전 7:30~8:30 주일 오전 10:40~12:00		강봉석 총무 010-4631-7507
	싱어팀	주일 오전 8:00		김태신 팀장 010-2593-9215
2부 09:00	챔버팀	주일 오전 7:30~8:30 주일 오전 10:40~12:00		김종대 팀장 010-6418-7646
	주함께	주일 오전 10:00~11:00 주일 오후 2:00~3:00		김현철 총무 010-4629-0095
4부 14:00	주영광	주일 오후 12:30~2:00 주일 오후 4:00~5:20		남기웅 총무 010-8895-4696
	찬양인도팀	주일 오후 1:00 주일 오후 3:30~4:30		최현웅 전도사 010-4916-1712
1~4부 예배	예배진행팀	각 부 예배 섬김	자막, 영상 스위처, 카메라(사진), FD 모집	이경민 간사 010-2123-3730
수요예배 19:40	수요 온누리워십 예배진행팀	수요일 저녁 6:00	모집 : 싱어, 중보기도 자막, 영상 스위처, FD 모집	최현웅 전도사 010-4916-1712
여성증창팀	예향	매주 수요일 오후 1:30	개별 연락	홍윤숙 팀장 010-8757-2403

◆ 대전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9:00	주사랑	주일 오전 07:40~8:40 주일 오전 11:00~12:30	모집인원 : 00명 오디션 없음	이경수 집사 010-9048-6808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08:15~08:40	모집 : 드럼 1, 베이스 1, 싱어 여 2명	홍석구 성도 010-5513-2227
	예배진행팀		자막봉사	최성훈 간사 010-5136-8135
2부 11:30	주영광	주일 오전 09:00~11:00	모집인원 : 00명 오디션 없음	윤해명 집사 010-3410-0413
3부 14:00	찬양인도팀	주일 오후 1:10~1:50	모집 : 싱어 여 2명, 남 1명 오디션 : 개별 연락 드립니다.	김관수 목사 010-8818-2485
1, 2부	챔버		분야 : 관현악기 일체 오디션 : 개별 연락 드립니다.	김수연 성도 010-9406-2483
수요저녁 19:30	찬양인도팀	수요일 오후 6:40~7:10	모집 : 싱어 여 2명, 남 2명 오디션 : 개별 연락 드립니다.	김관수 목사 010-8818-2485
	예배진행팀		자막봉사	최성훈 간사 010-5136-8135

◆ 남양주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9:00	주찬양	주일 오전 8:00~8:45 주일 오전 11:00~12:40	장소 : 5층 소망홀 모집 : 각 파트별 00명	김용배 총무 010-4613-1896
2부 11:30	주영광	주일 오전 9:00~11:00	장소 : 5층 소망홀 모집 : 각 파트별 00명 / 챔버(챔버는 오디션 진행)	유주현 총무 010-8673-6159
1부 09:00	찬양인도팀	격주 토요일 오후 4:00~6:00	장소 : 본당 모집분야 : 싱어, 일렉	양지연 팀장 010-3349-2264
2부 11:30		격주 토요일 오전 4:00~6:00	장소 : 본당 모집분야 : 싱어, 일렉	최영진 팀장 010-7576-7799
3부 14:00		주일 오후 1:00	장소 : 본당 모집 : 싱어, 일렉	박성자 팀장 010-6249-5091
4부 16:00		매주 토 오후 5:00~7:00	장소 : 본당 모집 : 드럼, 일렉, 베이스, 싱어, 엔지니어	김덕현 팀장 010-4212-8629

◆ 평택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2부 11:30	주향기	주일 오후 1:30~3:00	오디션 있음(오후 2:00~3:00) 곡명 : 자유곡	최혁재 성가사 010-7462-7475
1부 09:00	챔버	주일 오전 8:30~8:50	개별면접과 오디션	이종민 전도사 010-5600-0926
2부 11:30	챔버	주일 오전 10:30~11:15		
3부 14:00	챔버	주일 오후 1:30~1:55		
수요예배 19:30	챔버	수요일 오후 6:50~7:20		
새벽기도회 05:30	예배진행팀	자막	개별교육	

◆ 인천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9:00	주은혜	주일 오전 7:30~8:40 주일 오전 11:00~오후 1:00	면접 시 개별 연락	권석출 팀장 010-6244-9157
	챔버	주일 오전 8:20~8:50	모집 : 첼로, 오보에	문장원 전도사 010-2816-4747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8:20~8:50	모집 : 싱어 1명 / 면접 시 개별 연락	전하라 간사 010-7380-4265
	예배진행팀	주일 오전 8:00~8:50	자막 1명	방송/영상 1명
2부 11:20	주능력	주일 오전 9:45~11:00 주일 오후 1:30~3:00	면접 시 개별 연락	김성곤 팀장 010-3949-0323
	챔버	주일 오전 10:30~11:20	모집 : 첼로, 오보에, 플루트	문장원 전도사 010-2816-4747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10:30~11:20	모집 : 일렉 기타, 싱어 1명 / 면접 시 개별 연락	전하라 간사 010-7380-4265
	예배진행팀	주일 오전 10:30~11:30	자막 1명	문장원 전도사 010-2816-4747
3부 14:00	찬양인도팀	주일 오후 1:00~1:50	모집 : 싱어 2명 / 면접 시 개별 연락	문장원 전도사 010-2816-4747
	예배진행팀	주일 오후 1:00~1:50	모집 :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플루트	전하라 간사 010-7380-4265
	예배지원팀	주일 오후 1:00~1:50	자막 1명, 방송/영상 1명	오미경 팀장 010-6306-2647
	찬양인도팀	수요일 오전 9:30~10:30	싱어 2명	이선희 팀장 010-3774-5667
수요여성예배	찬양인도팀	수요일 오전 9:30~10:30	싱어 2명	이선희 팀장 010-3774-5667
수요부흥예배	찬양인도팀	수요일 오후 6:40~7:30	싱어 2명	이선희 팀장 010-3774-5667

◆ 강동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9:00	주찬양	주일 오전 7:50-8:30 주일 오전 10:30-12:00	오디션 없음	윤석운 팀장 010-3321-7296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8:30	모집 : 싱어 오디션 일정 : 개별통보	서수민 전도사 010-3948-8594
	예배진행팀	자막, 카메라, 스위처, FD 모집		조종희 간사 010-8718-5900
2부 11:30	주기쁨	주일 오전 9:00-10:30 주일 오후 1:10-2:30	오디션 없음	이주현 팀장 010-3759-6466
	챔버	주일 오전 10:30	오디션 없음 모집: 첼로, 현악기	강수정 팀장 010-4519-6067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10:50	모집 : 싱어 오디션 일정 : 개별통보	서수민 전도사 010-3948-8594
	예배진행팀	자막, 카메라, 스위처, FD 모집		조종희 간사 010-8718-5900
3부 14:00	프라미스 콰이어	주일 오후 12:00-1:00 주일 오후 6:00-7:00	오디션 없음	홍성훈 팀장 010-5215-1198
	찬양인도팀	악기 주일 오전 10:30-12:00 싱어 토요일 오후 2:00	모집 : 싱어, 일렉, 베이스 오디션 일정 : 개별통보	서수민 전도사 010-3948-8594
	예배진행팀	자막, 카메라, 스위처, FD 모집		조지은 팀장 010-3298-7934
새벽기도회 06:20	찬양인도팀	해당 요일 오전 6:00	모집 : 싱어(주 1회 이상)	석승호 목사 010-4199-6951
수요저녁예배 19:30	예배진행팀	자막 (주 1회 이상)		석승호 목사 010-4199-6951
	예배진행팀	음향, 자막		
수요오전예배 10:30	예배진행팀	자막		조종희 간사 010-8718-5900

◆ 양지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등록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9:00	찬양인도팀	1부 주일 08:30~09:00	면접은 개별 연락	제치윤 선교사 010-4046-7601
2부 11:00	챔버사역팀	2부 주일 10:30~11:00		이강현 전도사 010-9390-2897
3부 14:00	예배지원팀	3부 주일 13:30~14:00		신민수 간사 010-2687-3743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턴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45기 젊은부부학교

일정: 4월 8일(토)~4월 29일(토)

대상: 결혼기간 12년 이하

비용: 가정당 35만원(4월 1일까지 30만원)

신청: 네이버카페, 온누리 아이스쿨

문의: 조동화 총무(010-2578-9861)

제115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기간: 4월 22일~5월 14일 총 4주(1주차-토

요일 당일, 2~4주차 1박 2일)

장소: 온누리교회(1주차), 진새골 사랑의

집(2~4주차, 경기도 광주)

회비: 가정 당 300,000원(자녀 동반시 1인

당 5만원 별도)

등록: 수시접수, 선착순 24가정(인터넷접수

www.onnurifamily.com)

문의: 김상범 총무(010-5471-0854)

목요선교집회 심어모집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9시 15분

장소: 비전홀

대상: 누구나

문의: 이승윤 전도사(010-2701-5309)

OEM한국어교실 봉사자(교사)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계절방학있음)

서류: 간단한 자기소개와 신앙간증문

자격: 온누리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서빙고 꿈아나눔이터 모집

기간: 3월 29부터 6월 7일까지(10주)

시간: 수요일 오전 10:40~오후 12:4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나눔

회비: 15만원(입금선착순)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서빙고 꿈아나눔이터 교사 모집

모집: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등

문의: 길혜영 전도사(010-3174-8107)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일본어 중급반

기간: 3월7일~6월27일(매주 화요일)

시간: 오후1시~3시

장소: 서빙고 신관 1층 Acts29홀

자격: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자

문의: 한행자 권사(010-7738-3804)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나눔(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나눔(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

임 살롱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제1136호 | 2017년 2월 19일(주일)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로로 31길 70
햇복선교센터
- **부천 박경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국토농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로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엘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5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문물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ba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
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지오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8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i 14, Saiin
Woi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Shanghai Minhangqu Caobao 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장춘 박시형 목사** 86-131-7900-0752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顺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경준 신기섭
김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지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일환 권영환
권오환 권영갑 김경호 김관수
김도균 김대웅 김상수 김원석
김소리 김승수 김은하 김윤식

◆부목사(정임)

김재식 김경숙 김경준 김원희
김종아 김찬호 김대웅 김원실
김홍주 노규석 김태영 협동목
마이클 문영재 박성우 박성우B

◆부목사(정임)

박무현 박윤환 박성우 박성우
손정훈 송영준 송영준 신원식
스티브 이영진 이영진 이영진

◆부목사(정임)

오민 오은규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준 유영준 윤길준
윤석원 이기원 이기원 이기원

◆부목사(정임)

이길택 이동훈 이만우 이상진
이서진 이영진 이영진 이영진

◆부목사(정임)

이천우 이해영 임웅성 임환재
전신익 전신익 전재원 전홍천

◆부목사(정임)

장성훈 정성현 정영관 정재륜
조병훈 조병훈 조준복 조현수

◆부목사(정임)

조호영 지대근 차명관 최성민
최성서 최승구 최용준 최희중

◆부목사(정임)

황제성 황준영 황기환 최원희

◆부목사(정임)

김태영 김은영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김진아 최정원 박승훈

◆부목사(정임)

배해상 변대섭 송석근

섬기는 분들

윤현규 이강현 이준인 임정현
◆경배와찬양 목회자

◆협력목사

김도일 류모세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하 김기범 김지애
김종영 김장성 김상수 김원석

마태우스 안희진 백영미 손 숙
성태배 안희진 이창호 유재민
유승택 윤용국 임선아 최봉오

◆전도사(파트)

김민석 강성호 강지영 강희성
고동일 고인호 고은아 구민선

김기호 김기택 김덕기 김세현
김민석 김장성 김상수 김원실

김세환 김은하 김은혜 김진아
김원석 김은하 김은혜 김진아

김진숙 김태환 노태규 문대성
김희연 김희연 김희연 김희연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김원준

섬기는 분들

최종현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사역장로

김진기 구광필 구재영 권도원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섬기는 분들

김상집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사역장로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섬기는 분들

김상집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사역장로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김진기

CGNTV



페이스북 검색창에

 **CGNTV Korea** 검색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시면

페이지 상단에 있는

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cgntv

CGNTV 대표 콘텐츠들을 엄선한 facebook ‘CGNTV Korea’

5만 구독자가 추천하는 SNS 채널, 매일 업로드 되는 짧은 영상으로 하루의 영성을 채워드립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는 복음의 메시지



울림과 감동이 있는 삶의 고백



삼.공.시리즈 (크리스천 30초 공감)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를 통해 가족과 친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